

LED, 동반성장 실행 “아직은...”

산업포럼 열고 공생발전 모색 ... 적합업종 견해차이 해소 못해

LED(Light Emitting Diode) 산업포럼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반성장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포럼은 갈등이 지속됐던 LED산업의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해 7월 산·학·연·관이 결성한 것으로, LED조명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반성장 실행전략은 광소자 분야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해외 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조명 및 응용제품 보급 로드맵 공유, 공동 산업인력 양성 및 디자인 인프라 구축 등이다.

포럼 위원장인 박명구 금호전기 대표는 “LED조명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창출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삼성LED,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대기업과 필룩스, 파인테크닉스, 정호그룹, 가인테크 등 중소기업은 비롯해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조합,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ED산업 동반성장 선언문>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대기업은 광원 및 소품종·대량생산, 중소기업은 다품종·소량생산에 주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기업은 조달시장 참여를 자제하고 핵심부품과 소재를 국내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의 견해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02>